

28℃를 사수하라... 관공서의 '電爭'

정부, 여름철 전력난에 실내온도 규제 전남도청 선풍기 1000대 구입해 사무실 비치 광주북구청 건물 옥상에 물 뿌려 더위 식히기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은 장식품이랍니다. 올 여름 지나기 전에 시원한 바람 한 번 맞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주춤 사이 연일 30도를 웃돌더니 급기야 11일 전남 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자 에어컨 가동없이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푸념은 늘어간 만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난 타개를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규제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경찰서 등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기온 체크 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에어컨 가동은 꿈도 못 꾸는 각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위를 쫓고 있다.

한국전력 전남본부는 지난 8일부터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슈퍼 쿨 비즈’(Super Cool Biz) 복장 착용과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수퍼 쿨 비즈’란 반팔 셔츠와 반

바지, 구두 이외의 신발 착용을 허용하는 간편한 옷차림을 말한다. 한전은 또 오전 7시 출근~오후 4시 퇴근,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도 운영 중이다.

한전 전남본부 '쿨 비즈' 반바지·샌들 차림 출근 수능 4개월 앞 고3 교실 남학교에선 팬츠바람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구입, 무더위를 날리는 곳도 있다. 외벽이 유리로 된 전남도청에선 1000대의 선풍기를 구입한 뒤 각 사무실에 비치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한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금세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기 일쑤다.

공유저택으로 잔물러 청사 건물의 열기를 식혀보기 한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1일부터 하루 한 차례 이상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 11일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과 소속 공무원들이 청사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로 구청 청사 외벽에 물을 뿌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건물 옥상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있다. 옥상에 그늘막이나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부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부채질을 해도 덥지만, 그나마 부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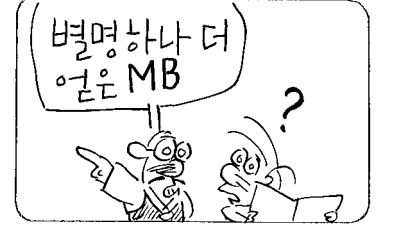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며 “더위와 씨름하느라 업무 집중력이 떨어져 차라리 가장 무더울 때 잠깐이라도 에어컨을 가동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 방침인데 별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수능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세미 누드’ 풍경이다. 매년 집중력이 떨어져 차라리 가장 무더울 때 잠깐이라도 에어컨을 가동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 방침인데 별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폭염예방 건강수칙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
-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
- 3 옷차림은 헐렁하고 가볍게
- 4 야외활동 삼가고 햇볕을 차단
- 5 실내선 냉방기기 적절하게 사용하여 26~28℃ 유지
- 6 자신의 건강상태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
- 7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살피기
- 8 주·정차 차량에 어린이나 동물 혼자 두지 않기
-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119에 전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안사업이었다



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적발

수십 명의 초등학생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가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기사는 광주지역 한 수영장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가려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광주북부경찰은 11일 모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 김모(45) 씨를 불합격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장 공짜연수’ 전교조도 반대

“역사관 부족” 시교육감 발언에 교장들 격분

선관위 “기부행위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선심성 무더기 공짜 연수’라는 비난 여론에도 강행하고 있는 교장단 해외연수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했던 전교조까지 정면 반박하고 나서 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일 성명을 내 “교육효과 의심되고 형평성 시비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교장단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그동안 교장단을 대상으로 이처형 대규모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이 없고 다른 해외 연수의 경우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번 연수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연수비 전액을 지원하는 특혜

를 준 것은 반대로 교실에서 비자빔을 흘리며 학생들과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특히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수를 부려 예산낭비 연수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전교조교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을 향한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성명을 냈다.

전교조의 반발 등으로 국면이 더 악화되자 연수 대상자인 교장들은 좌불안석이다. 교장들은 특히 장 교육감이 지난 8일 5·18 계기교육을 예로 들며 교장들의 역사관 부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의 한 교장은 “교육감의 발언은 교장들의 역사관을 의심하는 것으로 교장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며 “갑자기 중국연수를 만들어 놓고 미흡한 학교역사교육마저 교장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격분했다.

교장단협의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하자니 염치없는 역사관 부족 교장이 되고, 포기하자니 교육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게 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채 여론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장단 공짜 해외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연수가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기부행위 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태우 사돈 “추징금 일부 납부하겠다”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 검찰 조사에서 밝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이원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검찰 조사 후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신 전 회장은 그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조사를 받은 이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출국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1억원 중 일정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남스

완도해경 음주 사망사고 해임자 복직에 ‘뒤숭숭’

음주 운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해임됐던 완도해경 소속 A(여·35) 경사가 소청 심사로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고 경장으로 복직했다.

해경 직원들 사이에서는 마냥 드러내놓고 환영할 수도 없는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완도해경경찰은 11일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경사를 경장으로 한단계 강

등시켜 지난 3일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월14일 오후 8시 40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로 완도군 완도읍 최정공무원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6)씨와 양모(49)씨를 치어 김씨를 숨지게 했다. 해경은 당시 A 경장을 직위해제했음도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A 경사는 징계에 불복,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1계급 강등으로 복직처분을 받아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A 경장의 복직으로)청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지만 드러내놓고 반길 일만은 아니라 착잡한 감을 직위해제했음도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원도=정문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취종살인 공소시효 25일 앞두고 ‘달미’

○살인미수 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술자리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로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걸거.

○순천경찰에 따르면 임모(48)씨는 지난 1998년 8월 6일 순천시 행동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모(4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지난 10일 오후 순천시 덕월동 누나집에 숨어있다가 불발됐다.

○임씨는 지난 1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취중에 내뱉은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도주생활을 한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말이 경찰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에게 불발혀 철장량. /순천=김은경기자 ejkim@

헬로tv 가입하시면 반값!

42형 LG LED TV 477,400원 (가정용)

23형 LG LED TV 모니터 0원 (가정용)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제10-0562035호,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